『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15
pp.269-290 ISSN : 1229-9618

「연강첩장도(烟江疊嶂圖)」에 덧붙여진 왕선과 소식의 제화시 연구*

오성덕** · 무금연***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왕선(王詵) 과 소식(蘇軾)의 친교
3.「연강첩장도(煙江疊嶂圖)」의 제화시
  1) 왕선의「연강첩장도(煙江疊嶂圖)」
  2) 소식의「서왕정국소장연강첩장도(書王定國所藏煙江疊嶂圖)」
  3) 왕선의「봉화자첨내한견증장운(奉和子瞻内翰见赠长韵)」
  4) 소식의「왕진경작연강첩장도복부시십사운진경화지어 (王晋卿作烟江叠嶂图仆赋詩十四韵晋卿和之语)」
  5) 왕선의 화시
4. 나오는 말

【초록】

송대 신종때는 왕안석 신법 주창으로 정치 불안이 야기되었고, 수많은 문인들은 신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폄적되는 문학적 암흑기를 거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핍박 속에서도 송나라는 서양의 작품세계와는 차별화된 중국 고유의 문인화, 산수화를 꽃피우기에 이른다. 이 독특한 동양의 작품세계는 시와 그림이 지향하는 작품적 심미주의를 하나의 작품 속에 통합하고, 작품이라는 프레임 속에 문인들의 사상과 철학이 암시적으로 숨겨진다. 이러한 작품세계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분석하려는 서양의 작품세계와는 차별화된 함축적 비유나 은유적 함의가 시와 그림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다. 특히, 산수화나 문인화의 은유적 함의는 문자옥(文字狱)과 같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선비들이 언행을 삼가고, 마음을 그림 속에 투영하게 되면서, 작품 속에 숨겨진 은유적 의미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대풍조의 산물이

* 본 연구는 군산대학교 중국학과 박병선 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박사 (mbox1964@naver.com)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박사 (wjy197699@daum.net)

되었다. 그림과 시라는 서로 다른 공간의 예술 활동이 중국 특유의 제화시라는 작품으로 서로 다른 공간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더없이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제화시하면 떠오르는 송대 대표적인 산수화 「연강첩장도(烟江疊嶂圖)」에 덧붙여진 왕선과 소식의 제화시 연구를 통해 제화시의 가치와 문학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소식, 왕선, 연강첩장도, 문인산수화, 제화시

1. 들어가는 말

미술사나 문학사에서 시(詩)와 그림(畵)은 각각 언어예술과 조형예술로 구분되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학속의 시와 그림은 예술적 경계가 모호한 채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왔다.[1] 일찍부터 중국인들은 시와 그림사이에 존재하는 예술미의 동질성에 대해 주목해 왔던 것이다.

시는 언어문자를 통해 작가의 감성이 은유적으로 묘사되고, 이를 감상하는 독자는 시를 통해 그림을 감상할 때와 같은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림 또한 작품 속에서 시와 같은 외경을 갈무리하여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중국 문인들이 추구하는 '시화일률(詩畵一律)'[2]의 세계는 시와 그림을 통해 예술적 심미주의를 추구하려는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며, 그 결과물은 이른바 '詩情畵意'가 넘쳐나는 중국 문인들의 시와 그림 속에 그대로 구현되어있다.[3] 시중유화, 화중유시로 대표되는 중국 문인들의 작품들은 當代의 시대풍조나 심미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宋代에 이르러 시와 그림들은 산수시의 발전과 수묵화의 도입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시와 그림이 만나 제화시라는 새로운 차원의 작품세계를 발전시키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제화시라 하면 그림과 관련하여 창작된 제화문학의 한 갈래를 말하며, 주로 그림을 제재로 삼아 지은 시[4]를 말한다. 이 표현을 문장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림의 여백에 쓰

---

1) 李南鍾, 「宋代 題畵詩의 類型과 意境에 관한 考察: 『聲畵集』의 美人題畵詩를 중심으로」, 韓國中國語文學會, 2001.05.

2) 소식은 "왕유(王維)의 그림을 보면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하면서 시화일률이라는 명제를 도출해낸다. (왕유, '서마힐왕전연우도'에서). 시화일률에 대한 언급은 소식의 글에 자주 등장한다. 그의 작품 「書鄢陵王主簿所畫折枝 二首」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다. "論畵以形似, 見與兒童鄰. 賦詩必此詩, 定非知詩人. 詩畵本一律, 天工與清新. 邊鸞雀寫生, 趙昌花傳神. 何如此兩幅, 疏淡含精匀. 誰言一點紅, 解寄無邊春." 소식은 시화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천공(天工)과 청신(清新)"이다. 천공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기예가 높고 뛰어나다는 것을 비유한다. 시를 짓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의 요구와 법칙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모두 자연스러운 기교와 참신한 풍격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3) 이남종, 「송대 제화시의 유형과 의경에 관한 고찰」, 『중국문학』, 제35집, pp.77-79 참조.

4) '題畵문학'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青木正兒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제화문학을 畵意, 題畵詩, 題畵記, 畵跋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지아문학예술고」, 홍문당, 소화 6년, 서울대도서관.

여 진 시만을 의미하지만, 그림을 보고서 얻은 감회나 해당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했다면, 그 표현장소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제화시로 다룰 수 있는 것이다.[5)]

제화시의 내용을 보면 작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예술적 식견을 이야기하거나, 화면의 정취를 읊조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제화시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처럼 시간과 공간이 정지된 순간만을 묘사할 수 있는 그림에 시적 서사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그림감상의 제약성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화가가 의도한 주제를 알아채거나 감상자가 주체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림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제화시는 시·서·화의 세 가지 아름다움[6)]을 절묘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문학작품의 형식미를 높이는 동시에 중국화의 예술적 특색을 갖추게 된다. 중국의 제화시가 서양의 시와 그림이 추구하는 예술세계와는 차별화되는 이유이결과물인 것이다.

중국에서 제화시의 본격적인 창작은 盛唐시기 이백과 두보 등 시문학의 대가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송, 원, 명, 청을 거치면서 동양 문학사와 미술사에 이름이 등장하는 문인이라면 제화시의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예술 활동가운데 하나였다. 宋代의 손소원(孫紹遠)은 당·송시인의 제화작품을 수집하여 「聲畵集」 8권을 펴낸 바 있고, 청대의 진방언(陳邦彦)은 「御定歷代題畵詩類」 120권에 唐代에서 明代 사이의 작품 8,900여 수를 싣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제화시는 그림의 한 부분을 구성하여 그림의 의경[7)]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연구의 한 분야로 연구되거나, '시화일률(詩畫一律)'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연구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학 작품을 통한 제화시의 분석과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왕선(王詵)의 「연강첩장도(烟江疊嶂圖)」에 부쳐진 왕선과 소식의 제화시(題畵詩)를 통해 중국 특유의 제화시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제화시의 문학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중국미술사에서 한 부분으로 강조되는 제화시가 아니라, 사의(寫意)를 중시했던 중국 문인들의 전통이 그림에도 문학의 길을 걷게 했던 제화시의 연구가 중국문학사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왕선(王詵)과 소식(蘇軾)의 친교

宋代는 '숭문억무(崇文抑武)'를 주창하는 국가정책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크게 발전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문인과 문학작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호전된 시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인들은 그림에도 직접적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시와 그림을 더불어 논하는 시대풍조가 성행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왕안석의 신법'[8)]이라는 개혁안이 송나라 조정을 뒤흔들었고,

---

5) 金想美, 「蘇軾題畵詩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4 참조.

6) 한 사람이 시·서·화의 3미를 통달한다는 시·서·화 삼절(詩書畫三絶)은 중국 문인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문인상(文人像)으로, 총합적 인격형성의 지향이 예술방면에 나타난 것이다. 마츠바라 사브로 저, 김원동 역, 『동양미술사』, 예경출판사, 1998.

7) '의경(意境)'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상적 감정과 경치 또는 생활이 하나로 융합되어 형성된 예술적 경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함의와 경지를 말한다.

이때 수많은 중국 문인과 지식인들은 신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게 된다. 문자옥[9]이라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지식인들은 언행을 더욱 조심하게 되고, 문인들도 자신의 작품 속에 복잡한 표상이나 미묘한 문자나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은유와 상징으로 토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감상자는 창작 작품이나 그림 속에 함축된 은유적인 비유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유행처럼 성행했다.

이러한 문학 풍조는 시와 그림이라는 작품 속에 담겨진 작가의 의경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작품성을 논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중국의 제화시에는 창작자의 의도뿐 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문학적 견해가 그대로 녹아있다. 당시, 문자옥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과 시를 통해 화자가 되기도 하고 감상자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정서를 교환하고 친교를 나누던 왕선과 소식의 「연강첩장도」에 부쳐진 제화시를 살펴보면 그 의미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왕선(王詵)의 「연강첩장도(烟江疊嶂圖)」에는 왕선과 소식의 화시(和詩)들이 그림의 여백에 그대로 쓰여져 있다. 그림과 시가 한 공간에 존재하는 예이다. 이 제화시에는 그림과 시속에 숨겨진 은유적 함의와 나름의 해석, 두 문인들의 정서적 공감과 벗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마치 왕선과 소식의 비밀편지나 비밀일기장을 몰래 들여다보는 느낌이다.

왕선[10]은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금기서화[11]에 정통하고 시사(詩詞) 감상에도 능하며, 당시 문인들, 유명 정치인들, 유불도교의 인사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왕선의 숙부인 왕팽(王彭)과 소식(蘇軾)은 이미 정계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로, 당시 왕선과 소식은 친교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취미가 같고 친인척간에 친분이 사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두 사람의 교제의 시작은 시간문제일 뿐 인연의 고리는 애초부터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왕선의 「연강첩장도」를 본 소식은 왕선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은유적인 코드를 공감하며 시를 짓는다.

『소동파집』 4책 17권에는 왕정국[12]이 소장하고 있던 왕선의 산수화 「연강첩장도」를 보고 소식이 쓴 시가 수록되어 있고, 『동파시집』 19권 '화왕진경(和王晉卿)'의 서문을 보면 소식과 왕선의 교제와 화시를 쓰게 된 동기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3]

---

8) 중국 송(宋)의 왕안석이 1069~1076년 사이에 추진한 일련의 개혁 법안들로서, 균수법(均輸法), 청묘법(青苗法), 모역법(募役法), 보갑법(保甲法),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 시역법(市易法), 보마법(保馬法) 등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9) 문자옥(文字狱)이란 지식인을 박해하는 통치자의 옥사를 말한다. 『한어대사전』에는 "옛날에 통치자는 지식인을 박해하기 위해 일부러 그 저작에서 문구를 따서 죄로 만들었다"고 정의한다.

10) 왕선(王詵, 1048~1104년), 자는 진경(晋卿)으로 조부의 고향은 산서(山西)지방이었으나, 개봉(開封)에서 살았다. 촉국(蜀國)의 왕, 영종(英宗)의 딸과 결혼하여 부마도위가 되었고, 후에 정주관찰사(定州觀察使)가 된다. 그는 그림과 글씨를 좋아하여 집에다 보회당이란 집을 짓고. 서화를 수장하여 당대의 명사인 황정견, 미불, 소식등과 교류하면서 서화를 감상하곤 하였다.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평원의 풍경과 심삼유곡의 나무와 고목 등을 잘 그렸다고 한다.

11) 금기서화(琴棋書畫): 고대에는 거문고 타기, 바둑기(대부분 장기와 바둑을 지칭), 서예와 그림은 문인 소객의 수련에 필요한 기술이었다. '문인사우(文人四友)'라고도 한다.

12) 왕공(王鞏), 자는 정국(定國), 호는 청허거사(清虛居士)로 북송의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였다.

13) 『소동파집(蘇東坡集)』, 商務印書局·上海, 1930년 4월.

"驸马都尉王詵晋卿, 功臣全彬之后也. 元丰二年, 予得罪贬黄冈, 而晋卿亦坐累远谪, 不相闻者七年. 予既召用, 晋卿亦还朝, 相见殿门外. 感叹之余, 作詩相属, 托物悲慨, 阨穷而不怨, 泰而不骄. 怜其贵公子有志如此, 故次其韵." (부마도위왕선진경, 공신전빈지후야. 원봉이년, 여득죄폄황강, 이진경역좌루원적, 불상문자칠년. 여기소용, 진경역환조, 상견전문외. 감탄지여, 작시상속, 탁물비개, 액궁이불원, 태이불교. 령기귀공자유지여차, 고차기운.)

"부마도위 왕선(王詵)의 자(字)는 진경(晉卿)이며, 공신 전빈(全彬)의 후손이다. 원풍 2년(1079년) 내가 죄를 지어 황주로 폄적되었는데, 부마도위 왕선 또한 좌천되어 멀리 유배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소식을 알지 못한 지 7년 만에 내가 부름을 받고 조정의 관리에 임용되었는데, 왕선 또한 조정으로 돌아왔다. 서로 궁궐 문 밖에서 만나 감탄한 나머지 시를 지어 서로 주고받았다. 자신의 비분강개한 감정을 경물에 담아내며,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편안하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귀공자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으니, (왕선의) 시운을 따라 화시를 짓다."

왕선은 송나라 건립당시 큰 공로가 있는 신하출신인 왕전빈(王全彬)의 후손으로, 영종(英宗)의 딸 촉국(蜀國)공주와 혼인하여 부마도위로 관직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소식, 황정견, 이공린 등과 밀접한 교제를 나눴으나 신당이 득세하던 원풍 2년(1079년), 소식과 그의 친구들은 신법을 훼방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것이 유명한 '오태시안[14]'이다. 원풍 3년, 소식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촉국공주가 병사하자, 소식의 시가 실린 시집『전당집(全唐集)』을 편찬한 왕선도 '오태시안'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높은 직위를 박탈당한다. '오태시안' 이후, 왕선은 폄적된 우울, 조정에 대한 실망, 은퇴하고 싶은 정서를 작품 속에 담아내기 시작했고, 왕선의「연강첩장도」에 부쳐진 제화시 속에 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당시, 소식은 하북성 황주로, 왕선은 균주로 폄적되었다가 원풍 7년에 다시 영주로 이동한다. 왕선의 그림을 소장했던 왕정국은 광서성 빈주로 유배된 상태였다. 원풍 8년(1085년) 신종이 승하하면서 정치상황은 역전되었고, 신종 변법 개혁 중 박해를 크게 받았던 구당이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기에 이른다. 이때, 왕선과 소식은 유배생활을 마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와 과거의 우정을 이어간다. 하지만, 조정으로 돌아온 왕선과 소식은 오히려 지난날 훼방꾼들의 비난과 동료들의 따돌림을 받게 되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소중해지고 돈독해져 갔다.

오태시안과 폄적, 조정복귀와 은퇴라는 삶의 공간을 함께 겪어낸 왕선과 소식은 서로의 우정과 숨겨진 감정들을「연강첩장도」라는 작품의 여백 속에 화시로 남겼다. 특히 왕선의「연강첩장도」는 중국 산수화의 역사에서 뿐 만 아니라 중국 문예사도 큰 반향을 미쳐, 이 그림과 관련된 시사가부(詩詞歌賦), 제사(題辭), 발문(跋文), 평론 등이 대량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14) 원풍2년(1079년)여름, 오대(烏臺) 대사(臺史) 황보준(皇甫遵)이 명을 받고 호주(湖州)로 소식을 체포하러 갔다. 이때부터 송나라의 유명한 문자옥(文字獄)이 시작된다. 이른바 '烏臺詩案'이 그것이다. 개인과 당파 사이에 문제가 노출된 사건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3. 왕선의 「연강첩장도(煙江疊嶂圖)」[15]와 화시(和詩)

1) 왕선의 「연강첩장도」

<그림1> 왕선의 「煙江疊嶂圖」[16]

이 그림이 바로 왕선의 「연강첩장도」이다. 여기서 연강(煙江)이라 함은 안개 덮인 강이고, 첩장(疊嶂)은 중첩되어 연결된 산봉우리를 일컫는다. 이 그림을 보면 거대한 스케일의 산은 자그마한 봉우리와 화면을 가득 채운 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부분의 경치를 주목한 그림을 '소경 산수화'라고 부른다. 북송 초기 대관산수화[17]에서는 우뚝 솟은 주봉을 중심으로 주위의 봉우리들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국가의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왕선의 그림은 소경(小景)의 서정적 표현방식을 빌어 그림 속에 시적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대관산수화와는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다.[18] 특히, 이 작품의 여백에는 왕선과 소식의

15) 왕선의 「연강첩장도」는 현재 두 권의 책으로, 한 권은 청록본이고, 한 권은 수묵본으로, 모두 중국 상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6) 그림 출처: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17) 대관산수화는 커다란 두루마리 그림 위에 대자연의 풍모를 웅장하게 그려낸 유행으로 곽희(郭熙)가 죽은 뒤 함께 막을 내렸고,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새로운 화풍이 등장하게 되었다. 북송 전반 화단의 주도적인 양식은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곽희의 거비식 산수화였다. 곽희 이후 다시금 청록산수가 유행했으며 대관산수 대신 소경산수(小景山水)가 많이 그려졌다. 왕선은 이 두 화풍에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했다.

화시가 부침되어 있어, 소식이 말한 '화중유시(畫中有詩)'를 실감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문광[19]은 그의 저서『중국역대명화감상』에서「연강첩장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였다.

> "畫中江邊淺灘上, 坡岸間有垂柳雜樹, 排列成行, 枝葉繁茂, 拳頭石累累如浮現於水面之上, 在浪花沖擊下, 水珠四濺, 還有漁舟泛於江心, 片舟如葉, 隱約可見, 似動非動, 蕩漾生波, 逐漸消失在煙雲迷霧之中 ; 中段描繪江上青山, 層巒疊嶂, 呈現出高峰挺拔的雄偉氣勢: 樹繁葉茂, 紅綠相間, 富有生機. 山坳間流泉飛瀑, 飛濺於層疊的嶙峋山石之間, 奔騰直下."
>
> "그림 속 강가의 얕은 여울 위에는 산비탈과 강기슭 사이에 수양버들이 늘어섰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다. 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물보라에 물방울이 튄다. 한 가운데에 있는 고깃배는 나뭇잎처럼 가물가물하다. 움직이는 듯 출렁이는 물결은 점차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그림의 중간부분에는 강 위의 푸른 산이 첩첩이 늘어서 있는 산봉우리를 묘사하여 높은 봉우리가 우뚝 솟은 웅장한 기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무와 잎이 무성하여 울긋불긋 생기가 넘친다. 산등성이 사이로 흐르는 샘물이 폭포처럼 높이 치솟고, 겹겹이 쌓인 산과 돌 사이로 흩날리며 곧장 내려온다."[20]

또한, 장영국(張榮國)은 그의 저서『왕선의 '연강첩장도' 연구』에서 이같이 요약했다.

> "王詵首創了'煙江疊嶂'這一畫題, 它具有典型的隱逸思想, 作為'書信式山水畫'在知音間傳遞, 起到敘說故事、傾訴情感、交流經驗、增進友誼、勸慰鑒戒等多種功能. 『煙江疊嶂圖』借鑒並融合了諸家風格、圖式與母題, 冶文人畫與院體畫於一爐, 創造了真正意義上的文人化青綠山水."
>
> "왕선은 '연강첩장'이라는 화제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전형적인 은일(隱逸)사상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서신식 산수화'로 지음에게 전해져, 이야기를 들려주고, 감정을 토로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우의를 다지고, 위안과 권계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연강첩장도」는 각 화파의 풍격과 도형과 주제를 반영하여 문인화와 원체화(院體畵)를 융합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문인화 청록산수를 창조하였다."

후대의 문인들은 왕선의「연강첩장도」를 연구하면서 문학적 가치와 작품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론으로 개성 있는 재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왕선의 그림 속에서 풍기는 쓸쓸한 시적 정취는, 사랑과 우정을 남겨둔 채 추방당하는 마음의 쓸쓸함과 은일에 대한 몽환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목소리다. 또한, 그림 속에 담겨진 메타포를 통해 왕선이 담아내고픈 내면의 풍경은 현실세계에 대한 불안, 쓸쓸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송 후기의 정치적 우환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이 그림을 우연히 접한 소식의 마음속에도 왕선의 번민과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일까? 소식은 왕선의「연강첩장도」를 보고 시를 지어 화답한다.

2) 소식의 화시(和詩)

---

18)「21.문인산수화와 제화시 출현」, www.beopbo.com (검색일:2018.10.05.) 참조.
19) 장문광(蔣文光, 1938년~) : 중국의 유명한 서화, 금은기, 비첩 감정(鑒定)전문가.
20) 장문광(蔣文光),『중국역대명화감상』, 금순출판사, 2004. p.620.

<그림2> 소식의 「書王定國所藏煙江疊嶂圖」[21]

「연강첩장도」는 1085년 왕선이 폄적에서 복귀한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다. 1088년 12월 15일, 소식은 왕선의 그림을 보고 감동하여 「서왕정국소장연강첩장도(書王定國所藏煙江疊嶂圖)」라는 시를 지어 그림의 여백에 직접 쓴다. 그림과 글이 만나 색다른 예술세계를 펼쳐내는 것이다. 한 폭의 산수화와 그림의 여백 가운데 빽빽하게 채워진 제화시는 마치 깊은 산속의 무성한 나무숲처럼 다가오면서 화가와 감상자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왕선의 그림을 보고 소식이 전하는 화시는 다음과 같다.

蘇軾(소식), 「書王定國所藏煙江疊嶂圖 (서왕정국소장연강첩장도)」

1) 江上愁心千疊山(강상수심천첩산) 강위에 수심가득 산은 첩첩산중
2) 浮空積翠如雲煙(부공적취여운연) 창공에 수많은 봉우리 구름과 안개 같아라.
3) 山耶雲耶遠莫知(산야운야원막지) 산인지 구름인지 멀어서 알 수 없더니
4) 煙空雲散山依然(연공운산산의연) 안개 걷히고 구름 흩어지니 산의 모습 의연하다.
5) 但見兩崖蒼蒼暗絕谷(단견량애창창암절곡) 양쪽 절벽은 잿빛처럼 어두워 보이고
6) 中有百道飛來泉(중유백도비래천) 깍아 내린 계곡 백 갈래로 날아드는 폭포수
7) 縈林絡石隱復見(영림락석은복견) 숲 감돌고 바위에서 갈라져 숨었다 다시 나타나더니
8) 下赴谷口為奔川(하부곡구위분천) 산골짜기로 내달려 흐르는 냇물을 이루었구나.
9) 川平山開林麓斷(천평산개림록단) 평평한 시내물이 산을 여니 산기슭 끊어지니
10) 小橋野店依山前(소교야점의산전) 작은 다리와 시골 주점 산 앞에 붙어있네.
11) 行人稍度喬木外(행인초도교목외) 행인 몇 사람 다리건너 지나가고
12) 漁舟一葉江吞天(어주일엽강탄천) 작은 고깃배 하나 떠 있는 강물 하늘을 삼켰네.
13) 使君[22]何從得此本(사군하종득차본) 선생은 어느 곳에서 이 그림을 얻었는가
14) 點綴毫末分清妍(점철호말분청연) 필봉을 휘둘러 청아한 경치를 또렷이 그렸구나.
15) 不知人間何處有此境(부지인간하처유차경) 인간 세상 어디에 이런 곳이 있을까
16) 徑欲往買二頃田(경욕왕매이경전) 바로 그곳에 가서 밭 두 경을 사고 싶구나.
17) 君不見武昌樊口幽絕處(군불견무창번구유절처)

---

21) 그림 출처: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22) 한대에는 태수의 자사(刺史)라고 불렀는데, 한대 이후에는 주군, 장관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다. 통상적으로 선생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대는 모르는가 무창과 번구의 빼어난 곳에
18) 東坡先生留五年(동파선생류오년) 동파선생이 오년동안에 머무른 것을.
19) 春風搖江天漠漠(춘풍요강천막막) 봄바람에 강물 흔들리고 하늘은 아득하고
20) 暮雲卷雨山娟娟(모운권우산연연) 여름저녁에 구름은 비를 거두어 산이 곱고 아름답네.
21) 丹楓飜鴉伴水宿(단풍번아반수숙) 가을단풍에 날아드는 까마귀가 물가에서 함께 머물고
22) 長松落雪驚醉眠(장송락설경취면) 겨울소나무에 떨어지는 눈은 취한 잠을 깨우네.
23) 桃花流水在人世(도화유수재인세) 복숭아꽃 흐르는 선경이 인간 세상에 있으니
24) 武陵豈必皆神仙(무릉기필개신선) 무릉이라고 어찌 모두 신선 뿐 이겠는가?
25) 江山清空我塵土(강산청공아진토) 강산이 맑고 고요한데 나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
26) 雖有去路尋無緣(수유거로심무연) 비록 갈 길이 있다 해도 찾을 길이 없다네.
27) 還君此畫三嘆息(환군차화삼탄식) 이 그림을 그대에게 돌려보내며 세 번 탄식하니
28) 山中故人應有招我歸來篇[23](산중고인응유초아귀래편)
산중의 친구들 나에게 돌아오라 부르는 시를 짓고 있으리라
落款: 右書晉卿所畫『煙江疊嶂圖』一首. 元祐三年十二月十五日子瞻書.
낙관: 우서진경(晋卿)이 그린「연강첩장도」한 수. 원우(元祐) 3년 12월 15일에 자첨(子瞻) 지음.

소식은 원풍3년(1080년)에 폄적되어 황주단련부사(黃州團練副使)로 부임한 후, 남쪽 강변의 임고정(臨皐亭)에 머물렀었다. 당시 황무지였던 동쪽 언덕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면서 매우 가난한 유배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원풍7년(1084년)에 여주단련부사(汝州團練副使)로 다시 기용되면서 황주에서 4년 넘게 어려운 생활을 이어간다. 당시 이런 유배생활을 하던 중 소식은 왕선의「연강첩장도」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옛일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제화시를 지어 부친다. 이 시는 원우 3년(1088년) 겨울에, 소식이 변경(汴京)[24]에서 한림학사로 지낼 때 지었다고 한다.

시의 앞부분 1~12)구는 그림 속의 경치를 시적으로 간결하게 묘사했다. 왕선의 산수화를 보고 소식은 그림속의 공간과 거리를 마치 있다가도 없는 듯한 '무아'와 '혼돈'의 세계로 표현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름 연기' 같은 아득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겹겹이 줄지어 있고, 초목은 짙푸르고, 안개는 공중에 떠 있어서 이것이 산인지 구름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무아지경이다.

당시, 수묵화가 성행하기 이전의 산수화는 모두 청록색이었다. '하늘과 강물'때문에 산수화는 종종 청록색으로 물을 들였던 것이다. 당대 산수화의 주류였던 이사훈[25]과 이소도[26]는 금벽[27]에 채색을 하였고, 물이나 하늘은 모두 색을 넣었다. 송대로 접어들면서 산수화는 필법

23) 동진 시인 도연명(陶淵明)은 진 의희원년(405년) 사관 은둔하면서 '歸去來兮辭(귀거래혜사)'를 지었다. '초사·초은사'중에 "왕손이 돌아왔다, 산속에 오래 머물 수 없다(王孫兮歸來, 山中兮不可久留)"는 구절이 있다.
24) 변경(汴京): 옛 명칭인 '汴州', '도쿄(東京)', '대량(大梁)'은 오늘날의 허난성 개봉(開封)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여러 중요 왕조의 수도였다.
25) 이사훈(李思訓, 651~713년), 당대 화가, 자는 건앙(建晃), 룽서 성기(현재 간쑤성 친안)사람. 당대의 유명한 재상 이임보(李林甫)의 큰아버지, 무위대장을 지낸 적이 있는데, 세칭 '대이장군'이라 한다.
26) 이소도(李昭道), 자는 희준(希俊), 당대 화가, 이사훈의 아들.
27) 금벽 또는 청록산수화라고도 한다. 장식성이 짙고 고전적이며 화려한 그림으로 주로 비단에 그린

의 정교함, 그리고 함의적인 은유 등의 표현기법이 다양해지면서 물과 하늘은 대체로 색을 넣었다. 소식이 첫머리에 이 그림이 푸른색과 같은 짙은 색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는 소식이 직접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마주한 소식은 하나의 공간속에서 표현대상들이 원·중·근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감상자의 눈으로 서술해 나간다. 멀리서 바라보니 절벽이 가파르고 아득하여 두 절벽 사이는 어두컴컴하다. 조금 가깝게 다시 보니 벼랑 위에는 흘러오는 폭포수가 바위에서 갈라지자, 곧바로 세차게 용솟음치는 냇물이 되었다. 산기슭 아래 작은 다리와 주점이 이어져 있고, 행인은 숲을 가로질러 가고, 고기잡이 어부는 나뭇잎처럼 작은 배를 타고 물살을 따라 끝없이 나아간다. 소식은 정교한 붓놀림과 굳센 필치로 원근과 명암을 이야기하면서 단숨에 전체 그림의 큰 윤곽을 묘사하였다. 그림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소식의 시구가 더해지면서 그림과 시를 감상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비롭고 아름다운 정경과 정서적 공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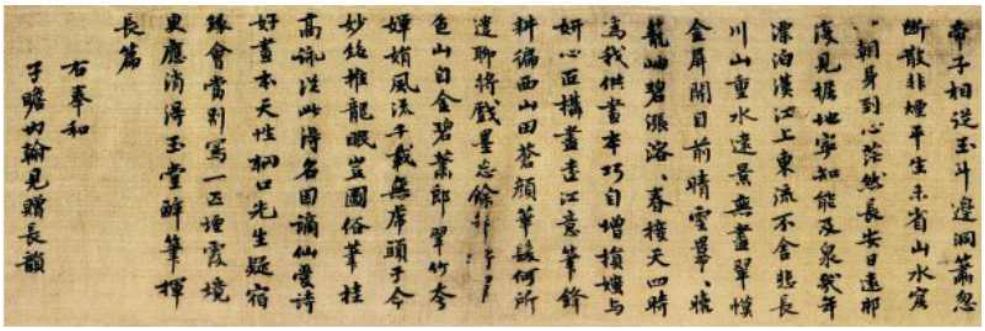
소식의 시 뒷부분 13~18)구는 화가의 상황과 소식 자신의 감성과 느낌을 묘사한다. 13), 14)구를 보면 “선생은 어느 곳에서 이 그림을 얻었는가, 필봉을 휘둘러 청아한 경치를 또렷이 그렸구나(使君何从得此本, 点缀毫末分清妍)”라는 문구는 그림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연결시킨다. 왕선의 그림속의 경치와 필법이 너무 감동스러웠던지, 시인 소식은 “직접 그 곳에 가서 밭 두 경을 사고 싶노라.(径欲往买二顷田)”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슬쩍 드러낸다. 당시, 북송 지배층간 신구당쟁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소식은 굴곡과 비운적인 삶을 회의하며, 자신의 벼슬길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다.

19~22)구는 무창과 번구에서 바라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차례로 읊으면서 굳이 속세를 피해 은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자문한다. 왕선의 그림속의 장소를 동경하면서도 속세도 나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은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소식의 답답함을 은근히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23-24)구에서는 시인의 자족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무릉도원이 인간 세상에도 있으니, 왕선이 머물고 있는 그림의 세계로 가고는 싶으나, 현실사회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위로하며 세 번의 탄식과 함께 그림을 돌려주는 것이다. 앞부분은 그림 자체에 대한 감상을, 뒷부분은 그림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정서를 노래한다. 앞뒤 구절이 서로 잘 호응하며 작품의 구성 또한 치밀하다.

3) 왕선의 화시(和詩)

소식이 「서왕정국소장연강첩장도(書王定國所藏煙江疊嶂圖)」를 지은 후, 왕선은 소식의 시에 화답하여 다음과 같이 「奉和子瞻內翰見贈長韻(봉화자첨내한견증장운)」을 지어 그림의 여백 속에 담는다.

다. 금색은 노랑, 분홍, 빨강 등의 색, 벽색은 초록, 파랑, 보라 등의 색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3> 왕선,「奉和子瞻內翰见贈长韵(봉화자첨내한견증장운)」

왕선,「奉和子瞻內翰见贈长韵(봉화자첨내한견증장운)」

1) 帝子[28]相從玉鬥邊(제자상종옥두변) 제왕의 자녀들 서로 모여 술 한 잔 마시는데
2) 洞簫忽斷散非煙(동소홀단산비연) 퉁소소리 돌연 멈추고 흩어지니 연기같지 않은가
3) 平生未省山水窟(평생미성산수굴) 살아생전에 경치가 빼어난 곳 가보지 않아
4) 一朝[29]身到心茫然(일조신도심망연) 하루 아침에 몸과 마음 막막하기만 하네.
5) 長安日遠那復見(장안일원나복견) 저 멀리 장안의 해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6) 掘地寧知能及泉(굴지저지능급천) 땅 판다고 어찌 샘에 이를 수 있으랴.
7) 幾年漂泊漢江上(기년표박한강상) 몇 년 동안 한강을 떠돌아다녔으나
8) 東流不舍悲長川(동류불사비장천) 동류가 장천의 설움을 버리지 못했네
9) 山重水遠景無盡(산중수원경무진) 숭산준령과 먼 곳의 강물은 경치가 끝이 없으며
10) 翠幕金屏開目前(취막금병개목전) 황금색의 포위망과 청록색의 장막이 눈앞에 펼쳐졌다.
11) 晴雲幕幕曉籠岫(청운막막효롱수) 맑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 저 멀리 산봉우리 덮고
12) 碧嶂溶溶春接天(벽장용용춘접천) 짙푸른 산들은 봄빛으로 하늘을 이어
13) 四時為我供畫本(사시위아공화본) 1년 내내 내게 그림소재를 제공하네
14) 巧自增損媸與妍(교자증손치여연) 교묘하게 아름다움을 과장하며, 추한 것을 덜어내고.
15) 心匠構盡遠江意(심장구진원강의) 독창적인 구상으로 강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지
16) 筆鋒耕偏西山田(필봉경편서산전) 붓끝으로 서산의 밭을 갈고.
17) 蒼顏華發何所遣(창안화발하소견) 머릿결이 희끗하니 어디로 보낼 수 있겠는가
18) 聊將戲墨忘余年(료장희묵망여년) 묵으로 잠시나마 위로하며 여생을 달래야지.
19) 將軍[30]色山自金碧(장군색산자금벽) 장군의 얼굴은 산에서 비낀다 하여
20) 蕭郎翠竹誇嬋娟(소랑취죽과선연) 소랑은 청록색의 대나무로 아름다움을 칭찬하다.
21) 風流千載無虎頭[31](풍류천재무호두) 천년 동안의 풍류에는 고개지 같은 화가가 없으니
22) 於今妙絕推龍眠[32](어금묘절추용면) 지금의 묘에는 이공린을 으뜸으로 꼽아야 한다.

---

28) 제자(帝子)는 중국 전설에서 상고시대 강성 부족의 수령으로, 한마디로 신농씨(혹은 신농씨의 자손)이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임양이라고 전해지는데, 하루 종일 화산을 유람하다가, 신룡을 보고는 몸이 바로 반응하여, 돌아와서 제자를 낳았다. 여기서는 제왕의 자녀로 해석하였다.
29)『시·소아·동궁(詩·小雅·彤弓)』: "鐘鼓既設, 一朝饗之. "
30) 장군은 당대의 이사훈(李思訓)을 가리키며 '금벽청록산수'의 창시자이다.
31)『태평광기(太平廣記)』卷210「畫一·顧愷之」, p.607: 진 고개지는 자가 장강하고, 작은 자가 범머리, 진릉 시람이다. 다재다능한 화가로 단청화에 능하고, 형세를 잘 묘사하여, 매우 절묘하다.(晉顧愷之字長康, 小字虎頭, 晉陵人. 多才氣, 尤工丹青, 傅寫形勢, 莫不妙絕.)
32) 龍眠: 화가 이공린(李公麟)의 호.

23) 豈圖俗筆掛高詠(기도속필괘고영) 어찌 속필을 높이 달아
24) 從此得名因謫仙[33](종차득명인적선) 선인을 적선하여 이로부터 이름을 얻었다.
25) 愛詩好畫本天性(애시호화본천성) 시화를 좋아하는 것은 본래의 천성이며
26) 輞口[34]先生疑宿緣(망구선생의숙연) 몸을 피해 은둔하는 선생은 숙연을 의심하네.
27) 會當別寫一匹煙霞境(회당별사일필연하경)
(그대를 위해) 연우노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로 그려야지
28) 更應消得玉堂醉筆揮長篇(갱응소득옥당취필휘장편)
(그대는) 학사 술에 취한 후 붓을 휘둘러 한 수의 시를 지어주겠죠.

왕선은 1~2)구절에서 조정의 생활을 회상해 보니 어느 곳 하나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이 없었음을 회상한다. 이 구절은 소식의 화시 17~18)구절에서 읊었던 "그대는 못 보았는가, 무창과 번구의 빼어난 곳을, 동파선생은 그곳에서 오년동안 머물렀다오.(君不見武昌樊口幽絕處東坡先生留五年)"에 대한 왕선의 대답이다.

3~8)구절은 현실에 매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은 자유롭게 산수를 유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임을 이야기 한다. 지금 조정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 안타까움과 한숨으로 심신이 피곤한 심경이다.

9~12)구절은 왕선이 유배 시 경험한 자연적인 절경을 관조하듯이 써내려 간다. 이 구절은 소식의 화시 19-22)구절에서 노래한 "春風搖江天漠漠, 暮雲卷雨山娟娟, 丹楓翻鴉伴水宿, 長松落雪驚醉眠"[35]에 대한 호응이다. 시공간의 사계절 변화와 아름다움을 4개 구절로 집약해서 드러낸다.

왕선과 소식의 화시는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서로의 감정과 가치관을 교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왕선의 화시는 소식의 시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은유나 은어에 대해 왕선 나름의 해석과 표현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즉, 소식의 은밀스런 표현인 27)구절 "그대에게 이 그림 돌려주며 세 번 탄식하니(還君此畫三嘆息)"에 대한 왕선의 반응은 그의 화시 27)구절에 드러난다. 왕선은 화시 속에서 "그대를 위해 연우노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로 그려야지요(會當別寫一匹煙霞境)"라고 화답하면서, 소식에게 '연강첩장도'를 따로 그려 주겠다고 전하는 것이다. 동시에 왕선의 시 28)구절을 보면 "옥당학사 술에 취한 후 붓을 휘둘러 한 수의 시를 지어주겠죠. (更應消得玉堂醉筆揮長篇)"라고 하면서, 은근히 소식에 대한 새로운 반응과 기대를 미리 주문해 놓고 있는 것이다.

왕선의 화시 18)구절 "묵으로 잠시나마 위로하며 여생을 달래네. (聊將戲墨忘余年)"라는 시구를 보면, 왕선은 당시 그림을 수묵화로 그렸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왕선이 마지막 문구에서 미리 주문해 놓은 것처럼, 소식은 왕선이 선물한 수묵화 '연강첩장도'를 보고는 바로 붓을 휘둘러 화답시와 서문을 지었다.

---

33) 謫仙: 원래는 신선이 범간 뒤에 처박히는 상태를 가리켜, 재능과 인정이 높고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도가의 인물로, 하늘로부터 쫓겨난 신선과 같다.
34) 輞口: 지명, 은둔한곳으로 비유.
35) "봄바람 강물 흔드는데 하늘은 아득하고, 여름 저녁의 구름과 비가 산을 아름답게 하네. 가을이 되면 단풍잎 옆에서 모인 까마귀가 물가에서 함께 자고, 겨울이면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눈 취하여 자는 사람 놀라게 하네."

"王晋卿作『烟江叠嶂图』, 仆賦詩十四韵, 晋卿和之, 语特奇丽. 因复次韵, 不独纪其詩画之美, 亦为道其出处契闊之故, 而终之以不忘在莒[36]之戒, 亦朋友忠爱之义也." (왕진경작 「연강첩장도」, 복부시십사운, 진경화지,어특기려,인복차운,부독기기시화지미, 역위도기출처계활지고, 이종지이불망재거지계, 역붕우충애지의야.)

"왕진경은 「연강첩장도」를 지었고 나는 십사운을 지었다. 진경(晋卿)은 화시를 지었는데 언어가 기묘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를 짓는 것은 단지 시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헤어진 옛 친구를 위한 것이다."

이 서(序)에서 볼 수 있듯이, 소식이 화시를 짓는 것은 왕선의 아름다운 시화뿐 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아끼는 우정 때문이라고 밝힌다. 소식의 마음에는 왕선이 유배되어 시간을 낚는 세월들이 소식 자신 때문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선에게 화시를 쓰는 서문에는 옛 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이 가득 담겨있다. 왕선이 선물한 수묵화 '연강첩장도'를 보고 두 번째로 지은 소식의 화시에는 왕선의 화시에 숨겨진 감정의 흔적들에 대해 일일이 소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마치 서로 서신을 주고받듯 서로의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공유하면서 화시를 지어 보낸 것이다.

4) 소식의 화시(和詩)

<그림4> 소식(蘇軾), 「王晋卿作煙江疊嶂圖仆賦詩十四韻晉卿和之語 (왕진경작연강첩장도복부시십사운진경화지어)」의 11~28구 예시

소식(蘇軾), 「王晋卿作烟江叠嶂图仆賦詩十四韵晋卿和之语(왕진경작연강첩장도복부시십사운진경화지어)」

1) 山中舉頭望日邊(산중거두망일변) 산속에서 머리를 들어 해를 바라보니
2) 長安不見空雲煙(장안불견공운연) 장안은 보이지 않고 하늘에는 연기뿐.
3) 歸來長安望山上(귀래장안망산상) 장안으로 돌아와서 산을 바라보니
4) 時移事改應潸然(시이사개응산연)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서 상심의 눈물을 흘리다.
5) 管弦去盡賓客散(관현거진빙객산) 관현악기 연주가 끝나면 손님들이 흩어지고

36) '不忘在莒'의 출처: 춘추전국시대 제환공(齊桓公)은 일찍이 莒國을 피난한 적이 있었고, 국군이 된 후, 그는 현능한 사람을 선발하고 정치를 개혁하여, 국부를 강화하여, 춘추시대 오패의 으뜸이 되었다. 관중(管仲)을 위시한 대신들은 제환공에게 莒國에서의 힘든 옛날 세월을 잊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마라, 제환공이 대업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6) 惟有馬埒編金泉[37](유유마날편금천)오직 마장(馬場)으로 돈을 버네.
7) 渥窪[38]故自千裏足(악와고자천리족) 악와(渥窪)강까지 천리면 되니
8) 要飽風雪輕山川(요포풍설경산천) 눈보라와 추위를 이겨내야 산천을 넘을 수 있다.
9) 屈居華屋啖棗脯(굴거화옥담조포) 화려한 집에 틀어박혀 대추를 먹고
10) 十年俯仰龍旗前(십년부앙용기전) 십 년 동안 용 깃발을 우러러 보았다.
11) 卻因病瘦出奇骨(각인병수출기골) 하지만 병으로 기골이 수척하여
12) 監車之厄寧非天(감차지액녕비천) 갇혀있는 비운은 하늘의 뜻 아니겠는가.
13) 風流文采磨不盡(풍류문채마불진) 풍류 문채는 다 쓰지 못하고
14) 水墨自與詩爭妍(수묵자여시쟁연) 수묵은 시와 아름다움을 다툰다.
15) 畫山何必山中人(화산하필산중인) 산에 사는 사람만이 산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6) 田歌自古非知田(전가자고비지전)
예로부터 전가에 능한 사람들은 농사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17) 鄭虔三絕[39]君有二(정건삼절군유이) 정건(鄭虔) 삼절에 그대는 둘을 차지했으니
18) 筆勢挽回三百年(필세만회삼백년) 필세가 삼백년을 만회하였네.
19) 欲將巖谷亂窈窕(욕장암곡난요조) 암곡으로 깊고 그윽한 산수를 어지럽히는가 싶더니
20) 眉峰修嫣誇連娟 (미봉수호과련연) 아룸다운 봉우리 자랑하듯 연이어 아름답다.
21) 人間何有春一夢(인간하유춘일몽) 이 세상에 봄날의 꿈이 어디 있으랴
22) 此身將老蠶三眠(차신장노잠삼면) 이 몸은 누에처럼 늙어서 이미 세 번 잠이 들었다.
23) 山中幽絕不可久(산중유절부가구) 깊은 산 속에 고요하지만 오래있을 수 없으니
24) 要作平地家居仙(요저평지가거선) 평지에 사는 신선이 되어야 한다.
25) 能令水石長在眼(능령수석장재안) 바위가 눈에 띄게 자라도록
26) 非君好我當誰緣(비군호아당수연) 그대가 아니면 내가 누구랑 연분을 맺을까?
27) 願君終不忘在莒[40](원군종불망재거) 그대는 평생 과거의 가난과 고통을 잊지 말고
28) 樂時更賦囚山篇[41](락시갱부수산편) 즐거웠을 때 유종원의 '수산부'를 다시 읽으시길
閏十二月晦日醉後寫此(윤십이월회일취후사차) 윤십이월 그믐날 취후에 이 글을 썼다.

소식은 이 화시를 통해 왕선의 예술적 지위와 친구로서의 위로를 아끼지 않는다. 소식의 시 13)구 "풍류의 문채는 다 쓰지 못하고(風流文采磨不盡)"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風流文采磨不盡(풍류문채마부진)"은 당대 시인 두보의 「단청인(丹青引)」에 나오는 구절 "문채풍류는 현재에도 남아 있다(文采風流今尚存)"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청인」은 바로 두보가 당대의 유명한 화마(畵馬)전문가인 조패를 위해 지은 작품이다. 이 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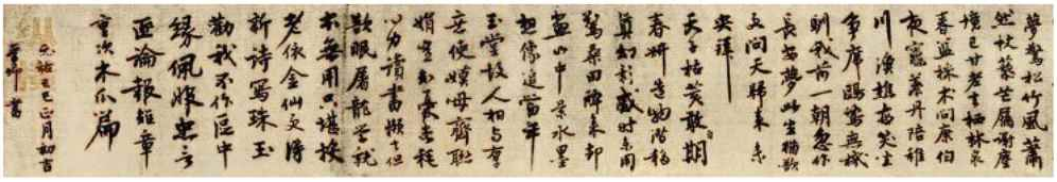
37) 『세설신어·태치(世說新語·汰侈)』: "王武子(濟)被責, 移第北邙下. 於時人多地貴, 濟好馬射, 買地作埒, 編錢匝地竟埒. 時人號曰'金溝'." 註: "溝一作'埒'." 금천(金泉), 즉 금전(金錢). 馬埒: 양쪽에 낮은 담이 있는 마장(馬場).
38) 『사기·락서(史記·樂書)』: "又嘗得神馬, 渥窪水中, 復次以為『太一之歌』." 渥窪: ⑴강의 명칭, 현재 중국 감숙성 둔황시 양관진 에서 전설의 산마가 나오는 곳이다. ⑵ 신마를 가리키는 말.
39) 당·이작(李綽), 『상서고실(尚書故實)』: "鄭廣文 (虔字)學書而病無紙, 知慈恩寺有柿葉數間屋, 遂借僧房居止, 日取紅葉學書, 歲久殆遍. 後自寫所制詩並畫, 同為一卷封進, 玄宗禦筆書其尾曰: '鄭虔三絕'." 또한 사람이 산수나 시, 서화를 잘 그리면 모두 정밀하고 절묘하다고 칭찬하는 말로 비유.
40) 한·유향(劉向), 『신서(新序)』 卷四 「잡사(雜事)」: "(齊)桓公謂鮑叔: '姑為寡人祝乎?' 鮑叔奉酒而起曰: "祝吾君無忘其出而在莒也, 使管仲無忘其束縛而從魯也, 使寧子無忘其飯牛於車下也." 이후에 이 전고를 써서 성공한 후에, 순조로운 때에 과거의 가난을 잊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경계하였다.
41) 「수산부(囚山賦)」는 당대의 문학가 유종원(柳宗元)이 영주를 폄하되었을 때 쓴 부이다.

도 조패의 풍문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노래했다. 조패의 명성과 비견할 만 한 왕선의 수묵화와 시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소식의 확신이 담긴 표현이다.

왕선이 소식에게 보낸 첫 화시를 보면 왕선 자신을 당대의 이사훈, 왕유와 이공린 등의 명사들과 비교한다. 비록 스스로 자괴스럽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문예계의 거장인 소식을 부러워함을 암시한 문장일 것이다. 소식은 왕선에게 친구로서의 자신감을 주고자 했는지 "그대는 수묵화의 거장이니 유명인들과 동등하게 지내라"는 긍정의 칭찬을 전한다. 소식의 화시 17~18)구절에 "정건삼절에 그대는 둘을 차지했네, 필세가 삼백년을 만회하였네 (鄭虔三絕君有二筆勢挽回三百年)"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소식은 왕선을 정건(鄭虔)에 비유하며 '삼절'이 아니라 '이절'이라고 칭찬하면서, 왕선의 문학적 자질과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쓰여진 소식의 화시에는 '마날편금천(馬埒編金泉)', '악와(渥窪)', '감차지액(監車之厄)'등의 고사가 등장한다. 천리마가 결국에는 백락(伯樂)을 만나게 되고, 선인들이 고진감래하며 재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왕선을 위로하기 위해 차용된 고사들이다. 소식의 이번 화시는 친구에 대한 위로와 자기 자신의 성찰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제화시라는 형식을 빌려 노래한 것이다.

5) 왕선의 화시(和詩)



<그림5> 왕선의 화시 4구부터 28구절

왕선은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예술계의 거장임을 칭찬해주는 소식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네 번째 화시의 서문을 이렇게 적는다.

> "子瞻再和前篇, 非惟格韻高絕, 而語意重相與甚厚, 因復用韻答謝之."
> (자첨재화전편, 비유격운고절, 이어의중상여심후, 인복용운답사지)
> "자첨은 다시 화답해주었는데, 시문의 풍격이 비범할 뿐만 아니라, 말의 의미도 심오하고 진중하니, 이에 운문으로 다시 그에게 사례한다."

이때는 이미 원우 4년 정월이다. 소식은 변경(汴京)에서 한림학사로 재직하며 황제의 명령을 기초하는 일을 맡고 있다. 왕선의 화시는 아래와 같다.

> 1) 憶從南澗北山邊(억종남간북산변) 남쪽 계곡, 북쪽 산기슭을 추억하면
> 2) 慣見嶺雲和野煙(관견영운화야연) 늘 산 위의 구름과 들의 연기가 떠오른다.
> 3) 山深路僻空吊影(산심로벽공조영) 깊은 산 으슥한 길에는 쓸쓸한 그림자 비추고

4) 夢驚松竹風蕭然(몽경송죽풍소연) 꿈속에는 송죽(松竹)바람 소연히 부네.
5) 杖藜芒履謝塵境(장려망리사진경) 지팡이 들고 짚신 신고 속세를 벗어나
6) 已甘老去棲林泉[42](이감노거서임천) 늘그막에는 산림천석에 머물기를 바란다.
7) 春籃彩術問康伯[43](춘남채술문강백) 봄을 쪽빛으로 물들이는 법을 강백에게 묻고
8) 夜竈養丹陪稚川[44](야조양단배치천)
밤에 화로를 설치하고 제단을 설치하여 치천(稚川)의 진인을 모시자.
9) 漁樵每笑坐爭席(어초매소좌쟁석) 어부와 나무꾼은 웃을 때마다 자리를 다투니
10) 鷗鷺無機[45]訓我前(구로무기훈아전) 갈매기가 내 앞에서 간교한 마음이 없다.
11) 一朝忽作長安夢(일조홀작장안몽) 어느 날 문득 장안몽이 되고
12) 此生猶欲更問天(차생유욕갱문천) 이생에서 또 다시 천수를 묻고 싶다.
13) 歸來未央拜天子(귀래미앙배천자) 재앙이 없이 돌아온 후 천자를 뵙고
14) 枯荄敢自期春妍(고해감자기춘연) 마른 풀잎이 감히 자신을 봄빛으로 물들인다.
15) 造物潛移真幻影(조물잠이진환영) 조물주는 음양을 옮겨가며 춘추를 교체하고
16) 感時未用驚桑田(감시미용경상전)
시간이 더디게 가는 줄 알았는데 상전벽해 됨을 슬퍼하네.
17) 醉來卻畫山中景(취래각화산중경) 취하고 돌아와서 산중 풍경을 그리며
18) 水墨想像追當年(수묵상상추당년) 수묵으로 옛날을 회상한다.
19) 玉堂故人相與厚(옥당고인상여후) 옥당의 옛 친구들이 서로 잘 어울리며
20) 意使嫫母[46]齊聯娟(의사모모제연연) 모모를 가냘프고 날씬하게 만들고 싶다.
21) 豈知憂患耗心力(기지우환모심력) 어찌 근심이 심력을 소모할 줄 아니
22) 讀書懶去但欲眠(독서라거단욕면) 공부는 게을리 하고 잠만 자고 싶다.
23) 屠龍[47]學就本無用(도용학취본무용) 용을 잡는 기술을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4) 只堪投老依金仙[48](지감투노의김선) 노년에 김선(金仙)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25) 更得新詩寫珠玉(갱득신시사주옥) 시 한수 얻었는데 문장이 아름답고 빼어나고
26) 勸我不作區中緣[49](권아부작구중연) 내게 속세의 정 연연하지 말라고 권하네.

---

42) 임천(林泉)은 뭇 산과 수림이 서로 어울려 반짝이며, 샘물과 돌이 서로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리킨다. 또한 문인과 선비의 은신처를 가리킨다.
43) 康伯, 즉 한강(韓康), 자는 백휴(伯休), 동한인사, 황보밀(皇甫謐)는『고사전(高士傳)』에 나오는 인물인데 약 판매 30여 년 동안 값을 흥정하지 않아 세상에 알려졌다. 마침내 '한강'이라는 말로 은일한 고스님을 가리켰다.
44) 稚川: 도가 전설의 선도, 치천 진군의 거소.
45) '鷗鷺忘機'는『열자·황제편(列子·黃帝篇)』에서 나온 것으로, '좋은 갈매기 새끼'는 이런 우화를 담고 있다. "海上之人有好鷗鳥者, 每旦之海上, 從鷗鳥遊, 鷗鳥之至者百住而不止. 其父曰: '吾聞鷗鳥皆從汝遊, 汝取來, 吾玩之'. 明日之海上, 鷗鳥舞而不下也."
46) 모모(嫫母)는 못생긴 여자라고도 불렀는데, 상고 시대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도 불렀다. 황제는 5000년 전 부족의 '약탈혼'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 성품이 어질고 온순하며 추한 모습의 추녀(봉호 모모)를 제4처실로 전문적으로 뽑았다. 황제는 또 "미모가 중하고 덕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며, 덕을 중시하고 안색을 경시하는 자가 진정한 현인"이라고 했다.
47)「전국·정·열어구(戰國·鄭·列禦寇)」,「장자·열어구(莊子·列禦寇)」: "朱評漫學屠龍於支離益, 單千金之家. 三年技成, 而無所用其巧."
48) 김선(金仙)은 도교선(道教仙)의 최고 경지이며, 김선으로 불교의 최고 과위(果位)를 가리킨다.
49) 남조 송 시인 사영운(謝靈運) 의 시「등강중고서(登江中孤嶼)」중 "想像昆山姿, 緬邈區中緣. " 당대 이백의 시「안륙백조산도화암기유시어관(安陸白兆山桃花巖寄劉侍禦館)」 중: "獨此林下意, 杳無區中緣. " 송대 심요(沈遼) 의 시「제경산(題徑山)」중"平生自得物外趣, 爾來更簿區中緣. " 명대 하경명(何景明)의 시「유노산성남사(遊魯山城南舍)」중: "久厭區中緣, 撫茲意彌深. "

27) 佩服忠言匪論報[50](패복충언비론보) 이것은 예의상 주고받는 서로의 빈말이 아니라
28) 短章重次木瓜篇[51](단장중차목과편) 영원히 친구가 되기를 진정 바라는 것이다.
元佑乙巳正月初吉晉卿書(원우을사정월초길진경서) 원우을사년 정월초길 진경서

왕선은 이번 화시를 통해 소식이 보여준 친구로서의 애정과 조언 그리고 예술가로써의 극찬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의 인생관, 예술관 등을 노래한다. 1~4)구는 지난날 자신의 고생을 떠올리며, 지금은 이런 고난들을 잘 견디면서 마치 찬바람이 쌩쌩 불 때의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서 있는 자신을 돌아본다. 송(松)과 죽(竹)은 문인화나 수묵화에서 '강한 선비 또는 세속을 초월한 초연한 군자'의 기풍을 대표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 네 구절은 소식의 화시 7~8)구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소식이 말하는 "눈보라와 추위를 겪어야 산천을 넘을 수 있다(要飽風雪輕山川)"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왕선은 이미 습관적으로 "늘 산 위의 구름과 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慣見嶺雲和野煙)" 상태인 것이다. 이런 인생 역정과 인생의 깨달음으로 왕선은 이미 자연스럽게 "지팡이를 들고 짚신을 신고 속세를 떠나, 늙어서 임천(林泉)에 머물기를 바라는 (杖藜芒履謝塵境, 已甘老去棲林泉)"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왕선의 '은일(隱逸)사상'과 은일을 실천하는 삶을 엿보이는 대목이다.

왕선의 시 7)구 "봄을 쪽빛으로 물들이는 법을 강백에게 묻고(春籃彩術問康伯)"에서 강백(康伯)은 바로 한강(韓康)을 말한다. 그는 세상의 명분을 떨쳐 버리고 자유롭고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다가, 벼슬길에는 위기가 사방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산속에 은거하여 여생을 보낸 사람이다. 왕선도 한강의 길을 따르고 싶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왕선의 시에서 언급한 또 다른 지자(智者)는 8)구절에 나오는 동진의 치천(稚川), 즉 갈홍(葛洪)[52]이다. 어릴 때 유학한 것으로 유명하고, 명예와 이익을 싫어하여 여러 차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관직 기회를 거절한 사람이다. 치천은 의술에 능하여 연단술을 탐닉하고 도가의 학문에도 정통하였다. 왕선은 치천의 은일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왕선의 9~10) 구절은 공리심을 근절하고 순수함을 추구하며, 세상과도 다투지 않고서야 비로소 먼지를 씻어내고 유유히 산림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이치를 천명한다. 왕선은 두 가지 우화를 든다. 『장자·잡편·우언(莊子·雜篇·寓言)』을 보면, 양주[53]가 노자의 가르침을 따라 처음에는 손님들이 모두 예의 바르게 자리를 양보하였으나,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자리다툼(爭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양주가 이미 자연스런 도를 얻어 사람들과 마음속의 틈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왕선은 9) 구절 "어부와 나무꾼은 웃을 때마다 자리를 다툰다.(漁樵每笑坐爭席)"라는 이야기를 빌려 쓰면서, 어부하고 나무꾼들과 함께 모여 화기애애한 생

---

50) 「시경·위풍·목과(詩經·衛風·木瓜)」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 匪報也, 永以為好也！投我以木桃, 報之以瓊瑤. 匪報也, 永以為好也！投我以木李, 報之以瓊玖. 匪報也, 永以為好也. "

51) 「시경·목과(詩經·木瓜)」,깊은 정을 전하는 시로 「시경·국풍·위풍(詩經·國風·衛風)」에서 나온 것으로, 선진 때 위국의 사랑을 다룬 민가 중 하나 이며 오늘날 가장 널리 애송되고 있는 『시경』 중의 명편 중의 하나이다.

52) 갈홍(葛洪, 283~343년), 동진 도교학자, 유명한 연단가, 의약학자. 자는 치천(稚川), 자호는 포박자(抱樸子), 단양군 구용사람이다. 그는 삼국시대의 방사 갈현(葛賢)의 조카로, 세인들에게는 작은 선인이라 불린다. 그는 일찍이 관내후작으로 봉인되었고, 뒤에 은거하여 나부산(羅浮山)에서 단련하였다.

53) 양주(杨朱), 자는 자거(子居), 중국 전국 초기의 사상가, 철학가.

활을 보내고 있음을 묘사했다. 왕선의 시 10)구절 “갈매기가 내 앞에서는 간교한 마음이 없다(鷗鷺無機訓我前)” 라는 문구도 하나의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 구로망기(鷗鷺忘機)는『열자·황제편(列子·黃帝篇)』에서 나온 것으로, 그중에 ‘好鷗鳥者’는 다음과 같은 우화를 담고 있다.

> “海上之人有好鷗鳥者, 每旦之海上, 從鷗鳥遊, 鷗鳥之至者百住而不止. 其父曰: ‘吾聞鷗鳥皆從汝遊, 汝取來, 吾玩之’. 明日之海上, 鷗鳥舞而不下也.”
>
> (해상지인유호구조자,매단지해상,종구조유, 구조지지자백주이불지. 기부왈: ‘오문구조개종여유, 여취래, 오완지. 명일지해상, 구조무이불하야.)
>
> “그 아득한 해안에는 갈매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매일 새벽 바닷가에 와서 갈매기와 함께 논다. 갈매기가 떼를 지어 날아왔는데, 때때로 100여 마리나 된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는 “갈매기들은 모두 너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너도 그 틈을 타서 몇 마리를 잡아서 나도 놀게 해 다오. 다음 날 그는 예전과 같이 해상으로 가서 갈매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갈매기들은 모두 고공에서 빙빙 돌기만 하더니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54]

이 두 가지 노장사상의 사례를 인용한 예를 보면, 왕선 자신은 세속을 벗어나 은둔코자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왕선은 소식의 시 7~8)구절에 대해서도 화답했다. 소식의 화시의 해당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식 - 화시중
7) 渥窪故自千裏足(악와고자천리족) 악와(渥窪)강까지 천리면 되니
8) 要飽風雪輕山川(요포풍설경산천) 눈보라와 추위를 겪어야 산천을 넘을 수 있다.
9) 屈居華屋啖棗脯(굴거화옥담조포) 화려한 집에 틀어박혀 대추를 먹고
10) 十年俯仰龍旗前(십년부앙용기전) 십 년 동안 용기 앞을 우러러보다.

당시, 소식은 폄적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다시 중임되어 조정에 복귀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왕선은 자신의 화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개괄한다.

왕선 - 화시중
11) 一朝忽作長安夢(일조홀작장안몽) 어느 날 문득 장안몽이 되고
12) 此生猶欲更問天(차생유욕갱문천) 이생에 또 다시 천수를 묻고 싶다.
13) 歸來未央拜天子(귀래미앙배천자) 재앙 없이 돌아온 후 천자를 뵙고
14) 枯荄敢自期春妍(고해감자기춘연) 마른 풀잎이 감히 자신을 봄빛으로 물들인다.

즉, 어느 날에 그는 갑자기 자신이 조정에 돌아가 근무하는 꿈을 꿨지만, 이러한 소망은 황제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지한다. 왕선은 조정으로 돌아와 천자를 만나 중용되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폄적되어 추방될 때 비록 궁지에 몰렸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고, 벼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지만 다시 조정에 돌아왔다. 하지만, 또 다시 좌절을 경험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다. 왕선은 이미 5~6) 구절에서 표현했듯이 “지팡이를 들고 짚신을 신고

54)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참고.

속세를 떠나니, 늙어서 산림천석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바란다(杖藜芒履謝塵境, 已甘老去棲林泉)"는 것처럼, 속물에서 벗어났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후의 어쩔 수 없는 우울한 감정을 드러냈다.

왕선은 19~20) 구절 "옥당의 옛 친구들이 서로 잘 어울리며 모모를 가냘프고 날씬하게 만들고 싶다(玉堂故人相與厚, 意使嫫母齊聯娟)"라는 표현을 통해, 소식이 자신의 예술적 조예를 높이 평가해 준 것에 대한 자겸과 사의를 표현했다.

소식은 화시에서 27~28) 구절 "그대는 일생 동안 과거의 가난과 고통을 잊지 말라, 즐거울 땐 유종원의 '수산부'를 다시 읽어라(願君終不忘在莒, 樂時更賦囚山篇)"고 조언했다. 이것은 좌천의 아픔을 잊지 말고 다시는 정치파동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수산부'를 읽음으로써 왕선이 완전히 은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전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의 애정 어린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왕선은 19)구 "옥당의 옛 친구들이 서로 잘 어울리며(玉堂故人相與厚)"와 28)구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短章重次木瓜篇)"는 속마음을 소식에게 전하는 것이다. 왕선의 마지막 구절은『시경(詩經)』의「목과(木瓜)」라는 시를 인용하여, 왕선과 소식의 깊고 두터운 우정에 대해 멋진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예의상 주고받는 상호의 말과 보답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진정 바라는 것이다(佩服忠言匪論報, 短章重次木瓜篇)"라고 말이다. 왕선의 마지막 화시는 소식의 화시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연강첩장도」의 동기, 주제 그리고 그 의미를 전반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림 속의 경치, 시속의 경치 그리고 그림속의 시가 조화롭게 어울려, 소식과 왕선의 글과 그림은 하나의 작품 속에 또 하나의 작품을 얹어 놓은 것이다. 그림과 시속에는 친구로서의 우정, 사랑 그리고 충고까지 고스란히 녹여 놓은 채 말이다.

4. 나오는 말

그림의 급속한 발전은 필연코 언어의 발달을 재촉하고, 화면의 의경은 언어의 논술을 필요로 한다.[55] 제화시는 글로 화면을 재현해 보고자 하는 사람의 심미적 안목과 심미적 이상을 담고 있다. 중국 고대예술에서 심미관은 줄곧 변화를 겪어왔다. 당대 사람들은 그림을 보는데 있어서 사실(寫實)을 지향한 반면, 송대 사람들은 사의(寫意)를 더욱 강조했다. 특히 북송시대의 문인은 화가의 구상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의경(意境)을 더욱 추구한다. 송나라 이전의 제화시는 결코 '시화통일'로 나아가지 못했고, 북송 시기에 이르러서야 구양수(歐陽修)[56]의 고문운동[57]에다 소식의 문인화 운동이 일어나 많은 문인들이 시화통일의 경지로 나아가

55) 金宋,「論題畫詩中的詩畫對應關系」,『藝術科技』, 2014.04 참조.

56) 구양수(歐陽脩,1007년~1072년): 중국 송대의 정치가, 문인. 翰林院學士등의 관직을 거쳐 태자소사(太子少師)가 되었다. 송나라 초기의 미문조(美文調) 시문인 서곤체(西崑體)를 개혁하고, 당나라의 한유를 모범으로 하는 시문을 지었다.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었으며,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요 저서에는『구양문충공집』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57) 당송 시대에 일어난 문학 혁신 운동. 주요 내용은 유학을 부흥시키는 데 있었고, 형식상으로는 변려문(騈儷文)을 반대하고 고문(古文)을 제창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고 회화의 심미적 경지를 높였다.[58]

제화시는 시와 그림을 하나의 공간에서 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의 서정성과 그림같이 그려지는 외경과 그림이 보여주는 풍경과 소재들이 암시하는 메타포들이 하나의 작품공간에서 만나 여백과 여백들을 채워 나간다. 왕선의 「연강첩장도」에는 소식과 왕선의 화시들이 붙어 산수화이자 제화시의 상징적인 작품이 되었다. 왕선의 「연강첩장도」는 지음(知音)사이에서 전달되어, 그림을 통해 그리고 화시를 통해 감상과 메시지 그리고 이야기의 전달, 친분 교류, 우정 증진과 위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59]

왕선의 「연강첩장도」는 화면의 절반 이상이 수면으로 그려졌다.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의미하는 물은 지식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겠지만, 왕선의 그림속에 표현된 물은 작가가 유배기간 동안에 겪었던 망설임 또는 망막한 심정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왕선의 솔직하고 개인적인 감정들은 그림속의 메타포로 숨겨져 있었을 테고, 이러한 작품과 서정들은 소식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에게 풍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왕선의 그림을 본 후대의 문인들은 수많은 시와 문장들을 양산했고 많은 모작들이 양산되기에 이른다. 왕선의 그림에 대한 이러한 반응과 예술적 가치는 문인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동질의 감성과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소식은 왕선의 그림 속에서 '오태시안'이라는 환난 때문에 먼 곳으로 좌천되어 외로움과 좌절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왕선과 소식의 그림과 시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풍경은 없다. 왕선의 그림에 묘사된 풍경은 「연강첩장도」가 그려내는 산수풍경일 뿐이다. 하지만, 이 그림 하나 속에는 정치적 시련과 상실감,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상실감과 은거하고 싶은 동경의 세상들이 펼쳐져 있고, 왕선과 소식의 제화시에는 지음간의 공감과 우정이 작품속에 걸려 있다. 당대 유명한 두 사람의 일기장 같은 진솔함과 고고함이 그림과 제화시로 남아 전해지지 않았다면, 왕선의 그림도, 소식의 글도 후대까지 그토록 오랜 반향을 불러오지 못했을 것이다.

---

58)葉林艷, 「宋代題畫詩研究」, 中南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참조.
59)張榮國, 「詩畫互文: 從蘇軾、王詵唱和詩新解王詵水墨卷'煙江疊嶂圖'」,南京藝術學院學報, 2015(01) 참조.

【참고문헌】

1.학술지 논문
「지아문학예술고」, 홍문당, 소화 6년, 서울대도서관.
金想美,「蘇軾題畵詩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金　宋,「論題畫詩中的詩畫對應關系」,『藝術科技』, 2014.04.
李南種,「宋代 題畵詩의 類型과 意境에 대한 考察」, 韓國中國語文學會, 2001.05.30.
肖　燕,「論宋代的題畫詩」,『大眾文藝』, 2009(11).
楊　曼·潘懿萱,「從'煙江疊嶂圖」看文人和院體畫風的融合」,『文學界: 下旬』, 2011(04).
葉林艷,「宋代題畫詩硏究」, 中南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鍾銀蘭,「對王詵水墨'煙江疊嶂圖'及蘇王唱和詩的再認識」,『上海博物館集刊』, 1996(09).
鐘巧靈,「詩畫相逢兩相應——論宋代題山水畫詩與山水畫的和諧」,『學術論壇』, No.5, 2006.
張榮國,「詩畫互文: 從蘇軾、王詵唱和詩新解王詵水墨卷'煙江疊嶂圖'」,『南京藝術學院學報』, 2015(01).
趙敏住,「北宋山水畫文人價值之產生: 以王詵『煙江疊嶂圖』為例」,『南京藝術學院學報』, 2010(02).

2. 저서
蔣文光,『中國歷代名畫鑒賞』(上冊), 金盾出版社, 2004.
沈　周·文徵明,『中國古代繪畫精品集: 煙江疊嶂圖』, 中國書店出版社, 2013.
張榮國,『王詵「煙江疊嶂圖」硏究』, 上海人民出版社, 2016.
(宋)「蘇軾和王晉卿並敘」,『蘇軾詩集』(卷17), 中華書局, 1982.
(宋)「郭熙.林泉高致·山水訓」,『中國畫學全書』(第1冊), 上海書畫出版社, 1993.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蘇軾, 王詵, 煙江疊嶂圖, 文人山水畫, 題畫詩
	영문	Su Shi, Wang Shen, *Yan Jiang Die Zhang Map*, Literature Landscape Painting, Painting & Letter Poetry

The Study of the Painting & Letter Poetry on in Wang Shen's *Yan Jiang Die Zhang Map* (烟江疊嶂圖)

Oh, Seong-Deok · Mu, Geum-Yeon

During the Song Dynasty, the Wang An-Seok's New Law brought about political instability, and many literary men went through the literary dark period, which was disciplined for opposing the new law. However, in spite of this persecution, the Song dynasty has become the prime time of literary and landscape painting development unique to the history of China. This unique art world of china, as named with Painting & Letter Poetry, incorporates the artistic aestheticism of poetry and painting into one single work with its implicitly conceals the ideas and philosophy of the literary creator in the frame of his work. These works of art are melted in poetry and paintings, with metaphorical implica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 artistic works.

Especially, the metaphorical implication of landscape painting and literary painting is the product of the era of sharing the metaphorical meanings hidden in the works, as the monks refrained from using words and phrases to avoid persecution like letter jade (文字獄). Paintings and Poetry, which are different field of art world on the different spaces, became the Painting & Letter Poetry of China's unique art world and different spaces are expanding their artistic value in a single space. I hope that it will be a chance to re-think about the value and the meaning of literary history of the Painting & Letter Poetry through the study of Su Shi and Wang Shen's poetry that have been added to the landscape painting of *Yan Jiang Die zhang Map* (烟江疊嶂圖), which is the representative in the Song Dynasty of China.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오성덕 / 吳盛德 / Oh, Seong-Deok	무금연 / 武金燕 / Mu, Geum-Yeon
	소 속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Em@il	mbox1964@naver.com	wjy197699@daum.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2월 13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